

아시아 축구 '카타르시스'



22일(현지시간)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C조 1차전 아르헨티나와 사우디아라비아 경기.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림 다우사리가 역전골을 넣은 뒤 공중제비를 돌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독일과 일본의 경기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일본 선수들이 기뻐하며 그라운드로 뛰어 들고 있다. /연합뉴스

‘언더독’으로 분류됐던 아시아 국가가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이틀 연속 우승 후보를 격파했다.

일본은 23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의 할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전차군단’ 독일에 2-1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2-1로 꺾어 이번 대회 최고의 이변을 연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아시아 국가가 ‘거함’을 격파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세기까지는 아시아 국가가 월드컵 본선에서 1차전에 승리한 적이 없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폴란드에 2-0으로 승리한 게, 아시아 국가의 월드컵 본선 1차전 첫 승리였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의 첫 1차

사우디, 2-1 아르헨 꺾고 최대 이변 ... 일본도 전차군단 독일에 2-1 승리 아시아 국가들 잇따라 우승 후보 격파 ... 월드컵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

전 동반 승리 기록이 탄생했다.

당시 한국이 그리스를 2-0으로 꺾었고, 일본이 카메룬에 1-0으로 승리했다.

2018년 러시아에서는 일본이 콜롬비아를 2-1, 이란이 모로코를 1-0으로 누르며 ‘아시아 2개국 1차전 동반 승리’에 성공했다.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힘겹게 출발했다.

개최국 카타르가 에콰도르에 0-2, 이란이 잉글랜드에 2-6으로 잇달아 무릎 꿇었다.

그러나 22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분위기를 바꿨고, 23일 일본이 독일을 잡으면서 아시아에 이틀 연속 낭보를 전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인 호주가 프랑스에 1-4로 패하긴 했지만, 한국이 우루과이를 제압하면 아시아 국가가 3개 팀이나 1차전에서 승리하는 과거엔 상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다.

이날 일본은 자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도 세웠다.

전반 33분 독일 일카이 킨도안에게 페널티킥 골을 허용한 일본

은 후반 30분 도안 리스, 후반 38분 아사노 다쿠마의 연속골로 2-1 역전극을 완성했다.

그동안 월드컵 본선에서 선제골을 내준 9경기에서 2무 7패에 그쳤던 일본은 이날 처음으로 역전승을 거뒀다.

또한, 독일을 상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한 두 번째 아시아 국가가 됐다.

독일은 이날 전까지 아시아 국가를 상대로 6승 1패(한국 2승 1패, 호주 2승, 사우디 1승, 이란 1승)를 거뒀다.

2018 러시아 월드컵 조별 마지막 경기에서 한국에 0-2로 패한 게 아시아 국가에 당한 첫 패였다.

4년 전 16강 진출에 실패한 독일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일본에 패하며 월드컵 무대 2연패를 모두 아시아 국가에 당했다. /연합뉴스

거미손 골키퍼들 초반부터 눈부신 활약



벨기에 골키퍼 쿠르투아가 24일 카타르 월드컵 캐나다전에서 페널티킥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벨기에 쿠르투아, 캐나다전 무실점 멕시코 오초아, 페널티킥도 막아내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각국을 대표하는 ‘간판 거미손’들의 활약이 초반부터 눈부시다.

24일(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얀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벨기에에는 캐나다를 1-0으로 물리쳤다.

이 경기에서는 캐나다가 슈팅 수 21-9로 벨기에를 압도하고도 오히려 영패를 당했다.

특히 전반 10분 캐나다가 얻은 페널티킥 기회를 벨기에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레알 마드리드)가 막아내 벨기에 승리의 발판을 닦았다. 캐나다는 이날 유효 슈팅 4개를 포함해 슈팅 21개를 시도하고

도 끝내 벨기에 골문을 열지 못했다.

캐나다는 지금까지 월드컵 본선에서 네 경기를 치렀는데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4패를 당했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지만 무득점인 나라는 6개국 중에서 4경기째 무득점은 캐나다가 유일하다.

전날 열린 멕시코와 폴란드 경기에서는 멕시코 골키퍼 기예르모 오초아(아메리카)의 활약이 빛났다. 오초아 역시 이날 로베르트 레만도프스키(FC바르셀로나)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며 0-0 무승부의 원동력이 됐다.

이번 대회 페널티킥이 8번 나왔고, 그중 두 번이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막아낸 골키퍼가 바로 쿠르투아와 오초아다.

이 둘은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명수 문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세이브 수에서 쿠르투아가 27개, 오초아 25개로 1, 2위를 기록했다.

각각 아르헨티나와 독일이라는 ‘거함’을 격파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예상 밖 선전에도 골키퍼들의 선방이 바탕이 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우와이스(알힐랄), 일본은 곤다 슈이치(시미즈)가 해당 경기의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우와이스는 아르헨티나의 유효 슈팅 6개(전체 슈팅 14개) 가운데 1골만 내줬다.

또 곤다는 전반에 실점의 빌미가 된 페널티킥을 내주는 반칙을 했지만 독일의 유효 슈팅 9개(전체 슈팅 25개)를 육탄 방어했다.

이밖에 튀니지를 상대로 역시 0-0 무승부를 끌어낸 덴마크 골키퍼 카스페르 슈마이켈(니스)도 1차전에서 이름값을 한 명 골키퍼로 꼽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연합뉴스

독일 꺾은 일본, 4년 전 한국과 ‘판박이’

마치 데자뷰 같다.

“2022 카타르 월드컵” 일본 축구대표팀의 독일전 승리는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의 독일전 승리와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다.

일본은 4년 전 한국과 비슷한 기록으로 ‘녹슨 전차’ 독일을 격파했다.

한국과 일본은 독일을 상대로 거의 비슷한 볼 점유율을 올렸다.

통계전문사이트 옵타는 24일 “일본은 독일전에서 26.2%의 볼 점유율을 올렸다. 이는 역대 월드컵 사상 가장 낮은 볼 점유율 승리 2위 기록”이라고 전했다.

이어 “1위 기록은 한국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독일전에서 찍은 26%”라고 설명했다.

스코어도 비슷하다.

한국은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F조 독일전에서 2-0으로 승리했고, 일본은 23일 카타르 알라이얀 할리파 인

점유율 - 한국 26%·일본 26.2%
2골 - 한국·일본 모두 후반에 득점
슈팅 - 한국 12개·일본 12개
골키퍼 - 조현우·곤다 MOM 선정
노이어 - 막판 공세에 공격 가담

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독일에 2-1로 역전승 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2골을 터뜨렸고, 모두 후반전에 넣었다.

슈팅 기록 역시 흡사하다. 한국은 4년 전 12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독일에 28개의 슈팅을 내줬다.

이번엔 일본이 12개, 독일에 26개를 시도했다.

판박이와 다르없다.

독일 골키퍼 마누엘 노이어(바이에른 뮌헨)가 후반 막판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 하프라인을 지나 상대팀 공격진영까지 넘어온 모습도 데자뷰 같았다. 다만 노이어는 중계화면을 기준으로 4년 전엔 왼쪽에서 오른쪽, 이번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넘어왔다.

경기 최우수선수인 ‘맨 오브 더 매치’(Man of the Match)에 골키퍼가 선정된 것도 같다.

한국-독일전에선 조현우(울산)가, 일본-독일전에선 곤다 슈이치(시미즈)가 최고 수훈 선수로 뽑혔다.

한국과 일본이 독일전에서 비슷한 기록을 쓴 건 일본이 4년 전 한국의 작전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날 일본은 4년 전 독일을 상대로 한국처럼 수비를 견고하게 쌓은 뒤 역습 위주의 작전을 펼쳤고, 독일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후반전에 빠른 스피드를 앞세워 득점을 노렸다.

이에 비슷한 점유율과 슈팅 기록 등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젊어진 스페인 무시무시한 화력 ... 코스타리카 7-0 완파

2000년대생들 대거 발탁 18세 가비, 최연소 득점자 3위

한층 젊어진 스페인 축구 대표팀이 무시무시한 화력을 과시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 축구대표팀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압수마 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E조 1차전에서 코스타리카를 7-0으로 완파했다.

스페인인 역대 월드컵 한 경기에서 7골을 넣은 건 이번이 처음이며,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불가리아전(6-1 승)을 뛰어넘는 대회 최다 골 차 승리다.

이날 스페인에선 6명의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는데, 면면을 살펴보면 스페인 축구 팬들은 더 흐뭇할 수밖에 없다.

생애 첫 월드컵에 나선 젊은 선수들이 맹활약했기 때문이다.

다니 올모(24·라이프치히)가 전반 11분 선제



가비

결승골을 넣었고, 페란 토레스(22·바르셀로나)가 멀티골로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2004년생 가비(18·바르셀로나)까지 후반 골맛을 봤다.

엔리케 감독은 이번 월드컵 최 종 명 단(26명)에 2000년대생들을 대거 발탁, ‘젊은 피’를 수혈하며 세대교체에 나섰다.

2002년생 안수 파티와 페드리(이상 바르셀로나), 니코 윌리엄스(아틀레틱 빌바오) 등도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세르히오 부스케츠(34), 조르디 알바(이상 바르셀로나),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첼시·이상 33) 등 베테랑을 선발해 ‘신구 조화’를 노렸다.

상대인 코스타리카가 E조 최약체로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이날 스페인의 경기력을 살펴보면 세대교체는 합격점을 받을 만했다.

통계 전문 옵타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날 가비와 페드리를 선발로 세우면서, 유럽 팀 중에선 1962년 칠레 대회 때의 불가리아 이후 처음으로 10대 2명을 선발 라인업에 포함했다.

영건들을 앞세운 스페인은 중원을 장악했고, 코스타리카에 슈팅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은 채 슈팅 18개(유효 슈 7)를 퍼부으며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다.

18세 110일의 가비는 월드컵에 출전한 역대 최연소 스페인 선수로 이름을 올렸는데, 후반 29분에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월드컵 최연소 득점자 3위에 올랐다.

최연소 기록은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17세 239일)가 보유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마누엘 로사스(18세 93일)가 2위다. /연합뉴스

오늘의 월드컵

25일(금) *한국시간 기준

- 웨일스 vs 이란 19:00
- 카타르 vs 세네갈 22:00

26일(토)

- 네덜란드 vs 에콰도르 01:00
- 잉글랜드 vs 미국 04:00

자료 : FIFA